

‘막강라인업’ 1등 향해 진격... 월화/수목 다 잡는다!

김래원 × 박신혜, 믿고 보는 1위 커플의 <닥터스> 6월 20일 첫방



<대박> 후속 새 월화드라마 <닥터스>가 6월 20일(월) 첫 방송된다. <닥터스>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의사가 된 두 남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하고, 평생 단 한번 뿐인 사랑을 시작하는 휴먼 메디컬 드라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류사회> 등 따뜻하고 서정적인 글을 쓰는 하명희 작가와 <별에서 온 그대>에서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오충환 감독이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노키오> 이후 <닥터스>로 방송에 복귀하는 박신혜가 불량 고딩과 열혈 의사를 넘나드는 혜정 역을 맡았다. 18살의 어린 혜정은 기댈 사람 하나 없었기에 어딜 가나 구박당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점점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 홍지홍을 만나 의사의 길

을 걷게 된다.

김래원은 인턴 시절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전직했다가, 다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돌아가는 홍지홍 역을 맡았다. 불량 고딩인 혜정에게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아준 사람이기도 하고, 혜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은 의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래원과 박신혜는 2014-15년 겨울 각기 월화드라마 <편지>와 수목드라마 <피노키오>를 동시간대 1위로 이끈 바 있어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나 보여줄 케미와 시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대로 의사집안의 외동딸에 외모까지 출중해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다가 혜정으로 인해 패배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서우 역은 이성경이 맡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고 재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사의 길을 선택한 윤도 역은 윤균상이 맡았다.

각자의 아픔을 지닌 김래원, 박신혜, 이성경, 윤균상이 국립병원에서 의사로 다시 만나, 메디컬·성장·휴먼·멜로가 뒤엉킨 한 편의 드라마를 써내려 간다.

올 여름 시청자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할 월화드라마 <닥터스>는 6월 20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싸인>, <편지>의 김아중, 장르물로 또다시 흥행 이어간다 <원티드> 6월 22일 첫방

<싸인>, <신의 선물-14일>, <편지>, <미세스 캅> 등으로 장르물의 명가로 우뚝 선 SBS가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문제작을 선보인다. 새 수목드라마 <원티드>는 국내 최고 여배우가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생방송 리얼리티 쇼에서 범인의 요구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엄마’의 고군분투기다. 한지완 작가와 <49일>,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 등을 연출한 박용순 감독이 기투합하여 만드는 작품으로 김아중, 지현우, 엄태웅을 비롯해 박효주, 김선영, 박해준, 이승준, 이문식, 김병욱, 전효성, 신재하 등 탄탄한 내공의 연기와 배우들이 집결했다.

김아중이 TV, 영화, 광고를 주름잡는 국내 톱 여배우 정혜인 역을 맡았다. 케이블 TV 사장인 남편과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세상 전부인 여자다. 돌발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던 날, 갑자기 그녀의 아들이 납치되면서 다시 카메라 앞에서 야 하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지현우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수사팀 경위 차승인 역을 맡았다. 차승인은 검거율 90%의 능력 있는 형사지만, 10%의 실패를 인생의 과제로 삼을 만큼 열혈형사다. 차승인은 처음에는 무모한 헤인과 사사건건 부딪히다가 연민을 느끼게 되고, 헤인을 위해 더더욱 사건에 매달리게 된다.

안하무인에 배려심이나 공감능력은 제로지만 천재적인 연출력으로 한때 잘 나가는 PD였던 신동욱 역은 엄태웅



이 맡았다. 동욱은 대학시절 첫사랑이었던 헤인이 납치범의 요구대로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자 복수심에서 오로지 시청률만 쫓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인본주의 방송을 지향하는 이상주의자 방송국 국장 최준구 역은 이문식이 맡았고, 뛰어난 편집과 대사 감각을 지닌 프리랜서 방송작가 연우신 역은 박효주가 맡

다. 방송사 조연출이지만 과거 천재 해커로 이름을 날린 박보연 역은 전효성이 맡았다.

이 네 사람은 납치범이 요구한 사상 초유의 생방송 리얼리티쇼 ‘원티드’를 이끌어 가게 된다.

영화처럼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원티드>는 6월 22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시청률 불패신화 연속극 퀸 김지영·이민영 투톱

6월 20일 첫방 새 아침 <사랑이 오네요>로 시청률이 오네요~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후속 <사랑이 오네요>(극본: 김인강, 연출: 배태섭)가 6월 20일(월) 첫 방송된다. <사랑이 오네요>는 사랑에 상처 입고 미혼모가 된 한 여자가 다시 찾아온 사랑을 쟁취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겨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일일드라마와 아침연속극 시청률 보증수표 김지영과 이민영이 동시에 출연하고, 얼마 전 끝난 <정글의 법칙 in 통가>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은 고세원과 이훈이 처남 매부지간이자 한 여자의 현재 남자와 과거 남자로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지영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생활전선으로 뛰어난 여주인공 이은희 역을 맡았다. 은희는 엄마와 자신의 동생(사실은 딸) 해인을 부양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해 웨딩드레스숍을 열게 되고, 자신의 실력을 알아본 민수와 두 번째 사랑을 이뤄가게 된다.

어머니가 남긴 쇠락해가는 웨딩홀을 맡아 성공가도에 올려놓는 나민수 역은 고세원이 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의 민수는 죽은 약혼녀와 많이 닮은 은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가 자신의 웨딩홀에 스카우트한다.

민수의 매형이자 과거 임신한 은희를 버린 남자 김병훈 역으로 이훈이 출연한다. 병훈은 멸끔한 얼굴과 호방한 성격, 몸에 밴 매너로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성공과 돈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속물이다. 장인의 회사인 파파제과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신다희(심은진 분)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병훈의 아내 나선영 역은 이민영이 맡았다. 파파제과 경영지원본부장인 선영은 민고 살아온 결혼생활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모래성을 쌓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재즈카페 사장으로서 병훈과 다희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알아채고 선영에게 연민을 갖는 오우주 역은 장동석이 맡았다. 오우주의 전처로 우주와 선영의 사이를 질투하며 훼방하는 재즈 가수 박리나 역은 가수 적우가 맡아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한다.

잡초처럼 살아온 여자가 행복을 찾으려는 순간 과거가 발목을 잡고, 공주같이 살아온 여자는 그동안의 삶이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다. 두 여자의 회오리치는 삶과 성장통을 그린 <사랑이 오네요>는 6월 20일(월) 아침 8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고부, 시청자 때료시킨다

6월 13일 첫 방송 새 일일 <당신은 선물>, 카타르시스 무한리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는 가장 뻥뻥한 거짓말이 “친엄마 같다”, “친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일 것이다.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이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6월 13일(월) 첫 방송되는 새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극본: 이문희, 오보현, 연출: 윤류해)은 고부지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여기 친모녀 같은 고부지간이 있다. 한낱한시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또다시 한 집안으로 팔자를 고쳐 고부로 만나게 된다. 그런 그녀들 앞에 등장한 전처이자 전 시어머니는 이 두 사람을 밀어내려 오만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회사를 빼앗으려 기를 쓰는 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해치려고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분노에 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푹푹 뭉쳐 전처이자 전 시어머니와 한판 승부를 시작한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이나 며느리에게 사랑을 줄 줄 아는 지혜로운 시어머니 은영애 역은 최명길이가 맡았고, 영특하고 씩씩하고 똑 부러지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란 며느리 공현수 역은 허이재가 맡았다.

태화와 한통속이 되는 야비한 야심이 마성진 역은 송재희가 맡았다.

친모녀보다 더한 정과 의리로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고부의 모습을 통해 주부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선사할 <당신은 선물>은 6월 13일(월) 저녁 7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재봉사 시절 짝사랑하던 사장님의 딸 영애와 재혼으로 맺어지는 TSK그룹 회장 마동식 역은 임채무가 맡았다. 마 회장의 전처로, 불륜으로 이혼당했으나 마 회장의 재혼에 쌍심지를 쏘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친태화 역은 김청이 맡았다.

TSK그룹의 차남으로 스스로 후계구도에서 물러나 있다가 아버지의 SOS를 받고 미국에서 돌아온 마도진 역은 차도진이 맡았다. 마도진은 7년 전 한 번 본 현수를 못 잊고 있다가 홀로된 현수와 부부의 연을 맺는다. TSK그룹의 장남이지만 출생의 비밀을 안고 친

20년째 이어온 따뜻한 손길... 희망TV SBS의 힘!

불황에도 정기 후원 총 7,786건, 총 56억여 원 모금

젊은 세대로, 온 가족으로...기부 확산

2016 상반기 <희망TV SBS>가 지난 5월 27일(금), 28일(토) 양일간에 걸쳐 방송됐다. 20년째 국내외 소외된 아이들의 곁을 지켜온 <희망TV SBS>는 올해도 기존의 나눔 토크쇼와 더불어 '아프리카 희망학교 VR 체험전'과 '기아체험 가족캠프'를 기획해 많은 참가자를 모았다.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된 'VR 체험전'에는 4,194명이 참여해 말라위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생활을 체험하며 현재에 감사했다. '기아체험 가족캠프'에는 20가구, 80명이 참여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가르쳐 주는 기회로 삼았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기부콘 캠페인은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해 호응을 얻었다.

<2016 희망TV SBS>를 통해 모인 월 3만원 정기 후원은 총 7,78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6억 원(24개월 후원 시)을 약정 받았다. 또한 카카오톡 기부콘 이벤트를 포함한 일시 모금액은 4,000만 원이 넘게 모였다. 모든 세대와 소통하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희망TV SBS>의 시도가 빛을 발한 것이다.

진정성이 돋보인 출연자들의 기부 동참 호소

올해 아프리카를 찾은 스타는 모두 6명.

텔런트 이광기는 우간다를 찾아 '노딩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전했다. 약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광기의 시선으로 고스란히 안방에 전달됐다. 갑작스러운 유행병으로 아들을 잃고 봉사로 새 삶을 사는 이광기의 참여는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시청자들을 기부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30명의 아동을 후원해온 이홍렬, 200억이 넘는 기부를 이어온 하춘화, 남모르게 기부와 봉사 선행을 펼쳐온 문근영, 김옥빈, 정준 등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거짓 없는 눈물을 흘리며 전한 기부행렬 동참 호소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에는 MC로 나선 배우 이정진, 김

민정과 아나운서 김환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전했다. 조성하와 예지원도 각각 국내 환아 사연과 특집 다큐멘터리의 내레이터로 참여해 소중한 마음을 더했다.

<희망TV SBS>를 총괄 기획한 교양국 성영준 부장은 "불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 2회 방송되는 <희망TV SBS>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감동적인 사연으로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지상파 위기 심각... 중간광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책팀 박석철 전문위원

올해 1분기 국민소득이 늘었지만 기업과 가계는 오히려 지출을 줄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5% 성장했고,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감소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4% 감소했다(6월 2일 한국은행 보도자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가계소비가 늘지 않으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릴 이유를 찾지 못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작년 말까지 소폭 증가하던 가계지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계가 소득이 늘었지만 지출을 안 하고 기업도 투자를 미루고 유보금을 늘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주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불안에 떨고 있으니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미디어업계 실적도 좋을 리 만무하다. 우리 TV광고 1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23억 원이 감소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올해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마케팅 예산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은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기가 어려움에도 지상파에 비해 시청률이 낮은 유료방송 채널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중간광고 덕분이다.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 채널에서 단발성으로 인기를 누리던 몇몇 프로그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률이 높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지만 광고 회피가 용이한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광고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시청률에 준하는 광고시청률을 담보하기 어렵다. 광고주들은 추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버금가는 광고 시청률이 담보되는 것이 마케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광고주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10년 전부터 지상파 방송은 정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지상파에만 차별적인 중간광고 규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수확대와 수출진흥이 시급한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에 작은 규제를 개혁하지 못해 이제는 지상파 방송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못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대비 전·후광고 시청률〉

장르	프로그램명	가구시청률	2049 시청률(PR)	2049 광고시청률(CR)	CR/PR(%)
드라마	아이가 다섯(KBS2)	30.6	12.4	5.3	42.3
	옥중화(MBC)	19.7	7.1	4.0	56.3
	미녀 공심이(SBS)	12.8	7.0	3.8	54.3
오락	무한도전(MBC)	15.0	8.6	3.2	37.2
	정글의 법칙(SBS)	13.5	5.2	2.0	38.5
	개그콘서트(KBS2)	10.3	5.6	2.7	48.2

출처: 닐슨 시청률 자료(5월 4주 드라마·오락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기준)

〈tvN 채널 프로그램 시청률 대비 중간광고 시청률〉

장르	프로그램명	가구시청률	2049 시청률(PR)	2049 광고시청률(CR)	CR/PR(%)
드라마	또 오해영(분방)	7.3	4.32	4.33	100.2
오락	신서유기2(분방)	3.3	1.92	1.94	101.0

출처: 닐슨 시청률 자료(드라마 5/24일, 오락 5/27일 방송분)

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 공익성의 모범사례로 인용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모든 국가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중간광고는 광고 효과가 높아 광고주의 수요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못하게 하다 보니 유료방송 1~2개 채널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 방송 53개사(중앙지상파 3사, 지역 및 중소 지상파 50개사)의 재원조달은 틀어막고 유료방송 1~2개 채널만 육성하는 정책이다. 유료방송을 진흥할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차별하는 정책은 이제 전면 수정할 때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체 간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유료방송에 역전된 것도 모자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한다.

임직원을 위한 첫 '하우스 콘서트' 인기 폭발



5월 31일(화) 오후 7시 목동 사옥 13층 SBS 홀에서 임직원을 위한 제1회 'SBS 하우스 콘서트: 초여름 밤의 꿈'이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SBS의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자 문화사업팀과 SBS 문화재단

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더하우스콘서트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연에 며칠 앞서 진행된 선착순 관람 신청은 순식간에 마감돼 행사 당일 SBS홀 190석은 사원과 그 가족들로 꽉 들어찼다. 서울대 음대 출신의 색소폰 콰르텟 '에스윿(S.with)'과 데뷔 24년차의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즈(Solists)'는 클래식에 대중음악을 접목해 90여 분 동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공연을 관람한 SBS A&T 제작기술팀 이형원 부장은 "가족과 아내의 지인까지 초대해 점수 좀 따다. 공연 내용도 좋았고, 경품 추첨까지 있어서 더 좋았다"라고 말했다.

다음 사내 콘서트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MEDIACRE8

부부의 날 이벤트로 업무 의욕 수직 상승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부부의 날 이벤트를 실시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모든 기혼 직원들에게 커플 영화관람권을 기프트콘 형태로 지급했으며, 명함 추첨을 통해 4명에게는 꽃배달 서비스 및 외식상품권을 지급했다. 명함은 허인구 대표가 직접 뽑았다.



행운의 당첨자인 IMC솔루션팀 이승재 대리(사진)는 "회사 이벤트 덕분에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회사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인과 외식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SBS 스포츠

박지성, UCL 결승 특별 출연... '클래스 다른 해설'



지난달 29일 새벽 SBS와 SBS스포츠에서 동시 생중계한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레알 마드리드와 AT마드리드의 경기에 박지성이 특별 출연해 배성재 캐스터, 박문성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췄다.

UEFA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경기 출전 경험을 가진 박지성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녹아있는 설명과 수준이 다른 경기 해석으로 중계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 경험에서 체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평가, 출전 선수들과의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 팀 동료였던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의 애칭 공개 등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막강한 중계진과 기술력으로 축구 중계의 명가로 자리 잡은 SBS는 UCL 중계에서 박지성의 출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결승전 생중계 직전에는 온라인을 통해 박지성과 함께하는 프리뷰 토크쇼 등으로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알 아라비아 뉴스 채널, <런닝맨> 현장 취재



알 아라비아 뉴스 채널이 5월 31일(화) <런닝맨> 촬영이 한창인 여의도광장을 찾아 제작진과 출연진을 인터뷰하고 촬영 현장을 취재했다. 또 목동 사옥을 방문해 남승용 예능1CP를 인터뷰했다.

알 아라비아 뉴스 채널은 중동 최대 방송사인 MBC그룹이 운영하는 뉴스·정보채널로, 아랍 내 전체 채널 중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다. 이번 방문은 중동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인기 요인과 현상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중동사무소와 본사 글로벌제작CP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알 아라비아 뉴스 채널은 남승용 CP와 이환진 PD에게 <런닝맨> 제작 및 편집 노하우, 룰런 비결, 포맷산업, 향후 과제와 계획 등을 질문했으며, 유재석과 김광수에게는 두바이 스페셜 편을 찍었을 때 소감과 또 다른 아랍국가 방문 계획,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 등을 물었다.

<런닝맨> 현장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이외에 글로벌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취재물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아랍 전역에 방송된다.

'제3회 건강 다이어트' 김영우 차장, 유우정 사원 1등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순천, 유우정 차장대우, 문경환 차장, 김영우 차장, 최윤석, 어준선 코치, 김영례, 변영욱, 조아라, 고명선, 오상현

노사협력팀이 임직원들의 건강이 건강한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3회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SBS피트니스센터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13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72명이 참여해 50명이 완주했으며, 출석률 50% 이상을 달성한 34명 가운데 수상자를 결정했다.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체중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과 영양을 병행하여 체지방과 근육량,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의 수치가 같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인상(남녀 각각 1인)

- 1등(상품권 20만 원): 김영우 차장(라디오편성기획팀장) 유우정 차장대우(예능운영팀)
- 2등(상품권 10만 원): 문경환 차장(재무팀) 조아라 사원(재무팀)
- 3등(상품권 5만 원): 최윤석 사원(광고팀) 변영욱 사원(노사협력팀)
- 재미허리상(피트니스 3개월 이용권): 장철 사원(편집기술팀) 김영례 사원(광고팀)

단체상(각 상품권 10만원, 단 중복수상은 제외)

- 유우정 차장대우(예능운영팀) | 김순천 사원(라디오운영팀) | 구지윤 사원(HR팀) 오상현 사원(기획팀) | 조아라 사원(재무팀)

아차상(상품권 5만원, 결과는 좋았으나 출석 미달)

- 제일 사원(SBS A&T 영상취재팀) · 고명선 사원(편성팀)